















7쪽

일행들 모두

병원

공수거는 의식불명.  
변호사 등장, 본인이 위  
급할 시엔 대리인이 자  
신의 재산을 유언장에  
지명한대로 실행하길 바  
라고 있음.

“미쳤냐? 내가 받는 돈도  
아닌데.”, “열받게 남에게  
주기까지 해?”, “대리인에  
게는 유산의 일부를 주기로  
하셨습니다.”  
일행들 얼굴에 회색이 돌고

일행들 유언대로 행하기  
위해 안간힘을 쓰고 결  
국 깨달은 바가 있어 자  
수성가 하겠지.  
디테일이 아직 없음.

7쪽 모두의 씬에서 부터

To be continued...